

제공일자	2008. 9. 5(금)	담당자	재무연구실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홍보담당	김 진 역 선임(368-4413)	연락처	02-368-4433 총 2 매

제 목 :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연금보험의 확대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충실한 리스크관리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IBR-Report 를 발간(2008.9.5)하였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이번 자료에서, 최근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 중 연금보험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에도 연금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FY2007 기준 생명보험산업에서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2 조원, 비중은 29.3%로 높아졌으며, 초회보험료 중 연금보험의 비중은 57.7%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적 요인으로서 장수리스크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55 세 남자가 향후 20 년을 더 생존할 확률이 1997 년 54.6%에서 2006 년에는 67.3%로 증가하여 연간 1.27%p 씩 증대되었다. 부부 중 적어도 한명이 향후 20 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95.1%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둘째, 금융시장 요인으로서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변액연금이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변액연금상품에 최저사망보증, 최저적립금보증과 같은 보증옵션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보수적 계약자의 수요를 견인하였다.

셋째, 연금상품의 경우 은행의 저축성 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해 판매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보험시장이 성숙된 외국과 연금보험 비중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연금보험보다 퇴직연금보험이 발달한 영국(64.9%)은 우리나라(29.3%)보다 35%p 정도 연금비중이 높고, 우리와 유사하게 퇴직자산 축적에 중점을 둔

미국(51.0%)도 우리보다 20%p 정도 높다. 현행 생명보험회사의 퇴직보험이 모두 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연금 비중은 37.3% 수준이어서 미국, 영국보다 10~20%p 정도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2006 년 기준 78.8 세)이 선진국(영국 79.2 세, 미국 78.1 세)과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연금 수요는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연금상품의 비중이 단기간 내에 크게 높아지고, 향후에도 연금보험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변액연금은 최저보증에 따른 투자리스크, 가격설정리스크, 계약자행동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최저보증에 대한 적절한 준비금 적립,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보유, 파생상품이나 재보험을 활용한 리스크 헤지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간 금리를 보증하는 금리확정형연금의 경우에는 금리하락시 이자율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망률 개선 효과를 과소추계할 경우 연금지급 시점에서 예상보다 보험회사의 연금지급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사망률 산출 방식, 시점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고 연금시장에서의 리스크 세분화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